

출판 산학협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학회, 한국대학출판관련학과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3일 "출판 산학협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종국 한국출판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21세기 산학협동의 현황과 좌표'에 대해 정기성 강릉대 경영학과 교수가, '출판 산학협동 발전방안'에 대해 이창경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 허윤 과장, 교육부 산학협력과 이상돈 사무관, 대한출판문화협회 강희일 부회장, 서일대학 정보출판과 이은국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창경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산학협동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기관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상호협력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과 산업체는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일방적, 의존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형 산학협력 모델을 찾고 이를 실행해감으로써 출판산업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판계에서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다. 출판문화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도 대중출판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출판계의 중요 사항이다. 대학, 협회 차원에서 양

성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지만, 체계적인 전문인 양성문제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출판계의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공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붕괴 직전에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학협동의 부진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시 이것이 제품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작용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산학협동이다. 공급인력이 많지 않은데다 어느 산업분야보다 사명감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출판계의 산학협동 문제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산학협동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미흡한 실정이다.

출판계 산학협동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출판계에서는 대학이나 산업체가 산학협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동의 실제에 있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산학협동과 인력 양성의 문제는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를 진척시키는 주체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했다. 학계에서는 출판산업계가 전문대학 출판관련 학과 출신자들은 너무 기능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해서 업계 발전에 기여도가 없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학계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출판산업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학계에서는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업계에서는 비협조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출판계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우현 등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사회적 인식의 부족, 교육과정의 비효율성, 현장실습의 형식화, 연구개발의 부족, 연계체제의 미확립 등을 들었다. 또 학계의 문제점으로 공동연구의 부족, 현장실습의 형식화, 산학협동체제의 미비 등을, 산업계의 문제점으로 소극적 태도, 학계에 대한 불신, 경영자의 근시적 안목, 전문요원의 부족 및 자체 교육체제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산학협동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산학협동의 초보단계에 있는 출판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체와 대학간의 동반자적 상호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업계는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육에 참여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대학은 산업체가 교육의 실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보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의존하다보면 지속적인 산학협동은 불가능하다. 학계에서는 업계

의 현실적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업계에서는 학계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책임자 역할이 중요하다. 산학의 단체장이 인식을 같이해야 업계로의 확산이 빠르고 추진력도 갖게 된다. 산학의 각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산학협동 기반조성 프로그램

〈산학관 연계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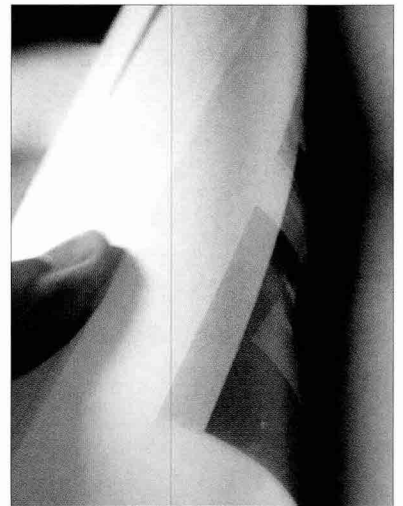
산학협동의 관건은 산학이 호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는 파트너십이다. 출판계의 산학협동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업계와 학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출판연구와 교육이 그렇듯 산학협동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산학 주체간에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기초하여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간 연계 협력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산학협동의 기본이 되는 상호이해라는 점에 있어서 출판계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출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산학간의 이해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37%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4%정도가 업계와 학계의 상호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산학협동 추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출판산업의 특성상 '산학협동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7%,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에 달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산학협동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출판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 이상이 산학협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의 인재양성 기여도에 있어서는 60%가 '크게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산학협동이 가능하고 또



출판계에서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출판문화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도 대중출판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출판계의 중요 사항이다. 대학, 협회 차원에서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지만, 체계적인 전문인 양성문제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출판계의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공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붕괴 직전에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학협동의 부진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재 양성과 큰 관련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산학협동 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산학협동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9%,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에 달하여 응답자의 90% 이상이 현재 산학협동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계의 산학협동이 부진한 이유로는 '업계의 관심부족' 34%, '출판산업의 특성' 26%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생의 의욕부족, 교수의 노력 부족, 학교나 학과의 무관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에서 가장 시급한 산학협동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항목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는데, '산학연계 산학협동 기구 설치'가 24%로 가장 많고, 전문인 양성 장학기금 확충, 산학협동 공동 프로그램 개발, 업계 직원 재교육, 자격증 개발 및 우선 채용, 교수 현장 연수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산학연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계기구 설립 추진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출판 연구와 교육은 서로가 동기를 부여하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이다. 이 점에서 출판 현장도 마찬가지다. 학문과 교육, 업계가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갈 때, 각 분야의 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교육계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정보와 기술 정보를 교육 프로그램들 통해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전이시키고 있

는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고, 산업계는 교육기관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위해 투자한 것이 무엇이며 산업현장과 교육정보의 연계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 내에서는 학과별로 산학협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동위원회는 대학과 업체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능인 양성과 교육개발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를 수평으로 연결하고, 업계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제간 연계체제 구축〉

출판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교육계와 산업계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공교육은 축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출판산업계는 별도의 출판인력 양성 공간을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판 분야의 취업난이 심하다고 해도 출판사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강조하기도 한다. 출판산업계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 어떤 산학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지는 출판관계와 산업계의 교류와 상호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다. 이런 점에서 출판계에 있어서 산학협동의 첫 단계는 열린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판전문인 교육은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2년제 대학에서 말아야 할 부분이 있고, 4년제 대학에서 말

아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산업계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각각의 교육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관한 부분,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현장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간다면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과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계와 산업계가 기본적으로 힘을 합하여 학점 교류,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출판전문인력 풀 시행〉

산학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류 가능한 인적 자원 파악과 공동 활용 가능한 시설의 파악, 그리고 당면한 연구 과제의 수요 등 산학협동을 위한 기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산학협동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교육분야, 산업분야를 총괄하여 개인별·기관별 기본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사업 추진〉

산학공동연구 개발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이를 생산에 적용한다는 점에 있어 산학협동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를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건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62%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총 추진 건수는 9건이었다. 물론 공동연구 참여 건수가 산학협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대적 척도는 될 수 없지만, 산학간의 교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출판분야에 있어 산학의 공동연구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가 선택되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는 업계의 필요성에 의하여 적절한 연구자를 찾을 수도 있고, 연

구자가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업계의 후원자를 찾을 수도 있다. 양측의 정보 교류는 산학협동 연계기구에서 담당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상호불신 없애야

출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인력 양성은 학계와 업계 공동의 문제다.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교육 내용, 방법론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출판인 양성의 한가운데에 산학협동은 존재한다. 산학협동은 산학이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출판계의 산학협동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진한 편이었고, 협동 또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산학간의 상호 불신이다. 업계에서는 학계의 교육 방법과 배출 인력의 수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학계에서는 업계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산학협동의 부재가 야기한 극단적인 상황이며 또 이것이 산학협동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판계 산학협동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산학협동 개념의 부재다. 산학협동은 아직도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출판계는 산학협동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협동할 수 있는 자

원을 조사하는 기본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부재다. 산학협동은 자발성을 근거로 한다. 현재 겨우 추진되고 있는 현장실습, 특강, 현장견학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례적으로 시행하는 수동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시대에 맞는, 또 각각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네 번째는 산학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연계기구의 미비는 산학협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학과 단위의 산학협동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역할을 증대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포함한 관산학 출판계의 협의체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의 부족이다. 산학협동의 장기적인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실습생을 받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거나, 현장견학을 제공한다거나, 특강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판전문인 양성교육은 분산에서 집중화로, 단절에서 연계로, 방관에서 협력으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양에서 질로 대체될 때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산학협동이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몇 가지 사항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단지 그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소홀했고 연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산학협동은 어느 한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창경 교수)

●●● 출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인력 양성은 학계와 업계 공동의 문제다.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확보가 문제되고 교육 내용, 방법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